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 강화

5·18 민주화운동 프로젝트 수업나눔... 시민단체 연대 프로그램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민주시민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수업나눔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0분부터 전주교육지원청 3층에서 민주시민교육 연구회 '민풍'에서 주관하는 5·18 민주화운동 프로젝트 수

업 나눔'을 진행한다.

백성동 교사(광주극락초)와 김영주 교사(광주여고)를 초청해 '기억하라 오월정신, 꽃피어라 대동세상'을 주제로 교실에서 학생들과 마주해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 수업 이야기를 들었다.

도교육청은 이번 수업나눔을 시작으

로 5월 민주항쟁에 참여한 우리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해 ▶단위학교 계기수업 ▶인권아카데미, 5·18 특강 ▶오월, 학생 원탁토론 ▶민주야 소풍가자! 세종 함께 걷다 ▶함께 보고 다시 생각하는 5·18 영화 시사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고 민주시민교육

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희망원을 접수한 후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 등 예방 관련 행동수칙을 준수해 진행할 것"이라며 "5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민주시민교육의 소통과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와 학생중심 체임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온라인 강의 2주 추가 연장 전주대, 5월 18일부터 등교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온라인 강의를 2주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강의는 총 8주 동안 진행되며, 등교 및 대면강의는 5월 1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27일 전주대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개강해 6주째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 왔지만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재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온라인 강의를 추가로 2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전주대는 강의의 질 향상과 원활한 온라인 강의 진행을 위해 다양한 기능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특히 VOD 서버 증설, CDN(Content Delivery Network) 방식 도입 등으로 현재까지 2700여 개의 온라인 강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수시교사 방식을 담당 교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성적평가 방법도 전 교과목, 절대평가로 변경했다.

특히 온라인 강의가 제한되는 일부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에 한해 10인 이하 소규모 단위로 수강생 간 거리 확보,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하에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주대는 재학생들과의 소통 창구인 비대면수업 학사모니터링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비대면수업 학사모니터링위원회는 재학생과 교직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주 1회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운영과 개별 교과목의 사이버강의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및 개선사항 등을 논의한다.

전주대 관계자는 "해의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했을 때 모든 수업을 전부 대면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해 먼저 일부 실험·실습·실기 위주의 수업만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27일 홍순직 총장, 박찬열 취업지원처장, 전병관 산학협력 사업관리팀장, 이상진 한국표준협회장, 김상현 전북지역본부장, 김태형 4차산업기반센터장, 오선태 일자리창업센터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표준협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비전대-한국표준협회, 산학협력 협약

고용쇼크 선제적 대응·우수 인재양성·정보교환 등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27일 한국표준협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홍순직 총장, 박찬열 취업지원처장, 전병관 산학협력 사업관리팀장, 이상진 한국표준협회장, 김상현 전북지역본부장, 김태형 4차산업기반센터장, 오선태 일자리창업센터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쇼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상호 협조, 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 사업 정보 제공 등 각 기관의 상호발

전과 유기적 산학협력 관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전주비전대는 한국표준협회와 ▲재학생 및 일반인 대상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공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사업의 상호 정보교환, 강사 및 교육 지원, ▲중소기업 대상 4차 산업혁명 관련 강좌 공동 개설 및 운영, ▲전라북도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프로젝트의 공동 수주 및 수행,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취업 및 창업 관련 자료 지원, ▲상호간의 물적·인적 교육자원, 기술정보 및 연구자료 공유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진 회장은 "대학도 기업과 마찬

가지로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전주비전대학교의 80%가 넘는 우수한 취업률을 기록한 전주비전대의 노하우로 대한민국 취업률 이끈 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순직 총장은 "한국표준협회는 우리나라의 KS 품질인증 및 ISO9001 등 품질경영에 앞장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온 기관으로 우리 대학은 한국표준협회가 가진 교육경쟁력을 대학과 협력해 코로나19 고용쇼크를 타개하고, 지역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기자

"스마트폰 없으면 일상에 지장" 청소년 10명 중 3명 '과의존'

통계청 '2020 청소년 통계'

10대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폰이 손에 들려 있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10대들의 흡연이나 음주 비율은 최근 들어서는 감소세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 중 30.2%는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29.3%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34.7%로 가장 높고, 초등학생 29.4%, 고등학생 24.4%로 조사됐다.

1년 사이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스마트폰 의존도가 각각 0.7%포인트(p)와 0.1%포인트(p) 커졌지만 같은 기간 고등학생은 3.9%나 줄어 눈에 띄게 개선됐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는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정도를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면 '고위험군' 또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한다. 중독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중학생(4.6%)이 가장 심했고, 고등학생(4.2%)도 과의존 비율에 비해 고위험군 비율이 높았다.

남학생(29.2%)보다는 여학생(31.4%)이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았고, 고위험군 역시 여학생(4.0%)이 남학생(3.7%)보다 많았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콘텐츠는 영화·TV·동영상 시청(97.5%), 카카오톡 등 메신저(97.3%), 학업·업무용 검색(93.9%)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가장 이용 비중이 높았던 게임은 93.1%로 떨어졌다.

이번 청소년 통계에서 함께 발표된 지난해 중·고등학생 흡연율은 6.7%, 음주율은 15.0%이다. 흡연율은 전년도와 비슷했고, 음주율은 전년보다 1.9% 줄었다.

흡연율은 10년 전(2010년 12.1%)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최근 들어 감소세가 주춤한 상태다. 음주율도 2010년 21.1%에서 줄긴 했지만 최근 5년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개선 흐름은 보이지 않은 정 점수 이상이면 '고위험군' 또는

/뉴시스

우석대 중국인 유학생들, 코로나 극복 힘 보태

마스크·발전기금기부 '눈길'

우석대학교 중국인 유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27일 우석대에 따르면 한 중국인 학생은 마스크를 쾌척하고, 다른 학생은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온정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학기 코로나19로 인해 입교가 어려워진 여서결(글로벌외식경영학과 박사과정 3차수) 대학원생은 최근 중국 현지에서 마스크 1만장을 보내왔다.

여 대학원생은 메일을 통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함께 극복하자는 마음을 담아 마스크를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중국 산둥사범대와 우석대에서 공동 학위를 받은 여서결 대학원생은 현재 유봉경영을 전공하고 있다.

우석대는 기증받은 마스크를 중국인



유학생과 재학생 등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아여 대학원생(심리운동학과 박사과정 3차수)도 이번 학기 미리 낸 생활관리비와 식비를 환불받지 않고 대학에 기부했다.

중국 중경대를 졸업하고, 현지 대학에서 미술·음악치료와 관련하여 시간강사로 활동한 양 대학원생은 전공 심화를 위해 지난해 3월 우석대 심리운동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양 대학원생은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마음으로 이 상황을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부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